

주요 작가전집, 굵직한 기획물로 잇따라

조지훈·김동리·박두진 등 '문학의 해' 맞아 전집출간 활발

'문학의 해'인 올해에 들어 주목할 만한 문학전집 출간이 줄을 잇고 있다. 작고 문인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작가의 작품들을 총정리한 이들 전집은 하나의 출판경향으로 묶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문학과 출판계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의미있는 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지훈, 김동리, 박두진과 같은 현대문학의 거두를 비롯해서 김승옥, 이문구 등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작가들이 최근 출간된 전집의 작가들로, 지금까지 문학 단행본을 주로 펴왔던 출판사들이 여기에 의욕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대문학 거두 3인의 전집 출간

우선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 시인으로 불리는 조지훈과 박두진의 전집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는 유명한 《청록집》(을유문화사) 출간 50주년 이 되는 해이기도 해 두 전집 출간의 의미를 더욱 각별하게 만들고 있다.

나남출판에서 출간되고 있는 '조지훈 전집'은 생전에 그가 남긴 모든 저작물을 망라한 것으로, 시인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한사람의 뛰어난 국문학자이자 민속학과 역사학에도 일가를 이루었던 학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시》, 《시의 원리》, 《문학론》, 《수필의 미학》, 《지조론》, 《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서설》, 《한국학연구》, 《채근담》의 7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1차분으로 《시의 원리》, 《한국문화사서설》, 《채근담》 3권이 나왔으며 나머지는 오는 9월경까지 완간될 예정이다.

이 전집은 원래 지난 1973년 일지사에서 출간됐다 절판된 전집을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그간 흩어져 있던 여러 판본들을 대조하여 결정본을 확정하고 당시 전집에서 누락됐던 논설들과 한시들을 발굴해 첨가했다. 전집 별권으로는 《화보집》과 연구논문을 모은 《조지훈 연구》가 준비중이다. 전집 편집위원으로는 그가 생전에 몸담았던 고려대 홍일식 총장을 비롯해서 홍기삼(동국대), 최정호(연세대), 최동호(고려대), 인권환(고려대), 이성원(서울대), 이동환(고려대), 박노준(한양대), 김인환(고려대)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총정리한 문학전집

출간이 줄을 잇고 있다.

적잖은 예산과

준비기간을 요구하는

전집출간 현상에 대해

출판계와 문학계는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두진 문학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신원문화사에서 출간된 박두진 전집은 1939년 《문장》지를 통해 등단, 현재까지도 작품활동을 쉬지 않고 있는 그가 여러 지면에 발표한 수필, 시평론, 서간과 일기 등을 아우른 '산문전집'이다. 널리 알려진 그의 수석수집기를 포함한 자연예찬론, 자신의 문학수업기를 비롯한 문학단상, 그때그때의 사회적 문제를 시인의 눈으로 짚어본 시사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 6, 70년대 "상상도 할 수 없는 탄압을 겪으면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던" 문제의 글들의 원문이 실려 있어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고향에 다시 갔더니》, 《여전히 둘은 말이 없다》, 《숲에는 새 소리가》, 《밤이 캄캄할수록 아침은 더 가깝다》, 《현대의 이해와 체험》, 《한국 현대시 감상》, 《시적 번뇌와 시적 목마름》의 전 7권으로 구성돼 있다. 그의 시전집은 지난 1981년 범조사에서 전 10권으로 출간된 바 있으며, 이후 시집으로 《폭양에 무릎 꿇고》(두란노, 1995)를 펴냈다.

"근대소설사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김동리의 전집도 작년 그의 타계 즈음부터 출간되기 시작, 그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음사에서 총 20권의 목적인 분량으로 기획된 '김동리 문학전집'은 1차분 6권이 작년 7월에 출간됐고 나머지는 올



최근 주요 작가들의 전집이 잇따라 출간돼 화제다.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1차분 목록은 단편소설로 《무녀도/ 황토기》, 《역마/밀다윈 시대》, 《등신불/까치소리》, 《저승새/만자동경》 등이 들어있고, 장편소설로 《사반의 십자가》와 《을화》가 수록돼 있다. 각권에는 유중호, 김윤식, 김치수, 진정석, 이동하 등 문학평론가들의 작가, 작품론과 더불어 생애연보와 작품연보가 첨가돼 있어 김동리 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의 또다른 장편소설들인 《해풍》, 《애정의 윤리》, 《이곳에 던져지다》, 《비오는 동산》, 《자유의 역사》, 《춘추》, 《아도》 등을 비롯해 시집 《바위》, 《패랭이꽃》과 평론들이 2차분으로 출간되며, 각종 에세이들과 미발표 원고, 자서전 등이 3차분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편집위원은 유중호, 김윤식, 이문구.

문장가 김승옥, 이문구의 전집들

6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승옥, 이문구의 전집 출간은 전집출간 대상 작가의 연배가 작고문인에서 생존작가로, 혹은 원로대가에서 중견문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전집출판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경유로 꼽힌다.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김승옥 소설전집'은 현재 거의 절필 상태에 있으나 지금까지도 후배 소설가들에게 소설쓰기의 전형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승옥문학의 전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생명 연습〉이 당선, 등단한 이후 1977년 단편 〈서울의 달빛 0장〉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고 펜을 놓기까지 그가 발표한 작품들이 총정리된 이 전집은 제1권에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차나 한잔〉, 〈염소는 힘이 세다〉 등의 단편이, 제2권에 〈환상수첩〉, 〈다산성〉, 〈재룡이〉 등의 중편 및 미완성 〈먼지의 방〉이, 제3권과 제4권에 〈내가 흠친 여름〉, 〈60년대식〉과 〈강변부인〉, 〈보통여자〉 등의 장편이, 그리고 제5권에 콩트가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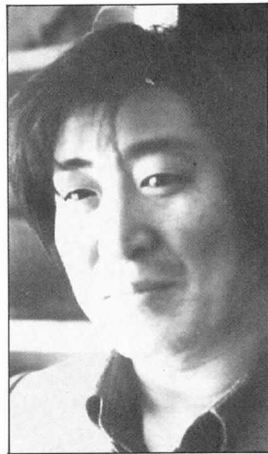
각권 말미에는 신경숙, 김영현, 채영주, 주인석 등 젊은 소설가들이 쓴 '내가 읽은 김승옥'을 덧붙여 새삼 그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으며, 제1권 권두에 실린 '나와 소설쓰기'라는 작가의 고백을 통해 절필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과 그의 문학관 등을 엿볼 수 있다.

산업화 와중의 피폐해가는 농촌의 현실을 곱씹한 입담과 살아있는 구어체 언어로 고발하면서 독특한 문학세계를 일궈온 이문구의 전집은 현재 솔출판사에서 전 12권으로 준비중이며, 이중 1차분으로 제1권과 제7권이 출간됐다. 올해안에 완간될 예정인 이문구 전집은 앞으로 1~2개월 간격으로 2~3권씩 발간된다.

제1권은 1965년 데뷔작인 〈달갈라 불망비〉를 표제작으로 1969년까지의 그의 초기 단편소설들을 수록했고, 제7권은 1977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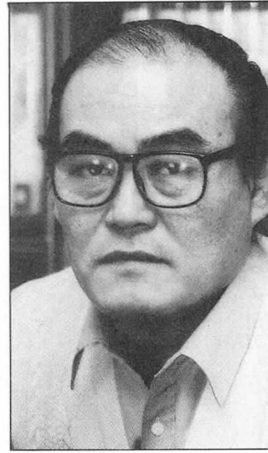
조지훈



김승욱



박두진



이문구

1981년 사이에 발표했던 연작 장편소설인 《우리동네》가 수록돼 있다. 앞으로 《이 풍진 세상을》, 《만고강산》 등을 비롯해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산문, 콩트, 동시까지 그가 쓴 모든 작품을 망라할 계획이다. 작가의 소설 이력 3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이 전집은 작가 자신의 첨삭, 가필, 개고작업을 마친 결정본으로, 신경림, 유종호, 김윤식, 김지하, 김원우, 김성동, 최원식, 김사인, 임우기 등 소설가, 시인, 평론가들이 대거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출판사는 이문구 전집 이외에도 ‘문학의 해’를 맞아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윤식 교수(서울대)의 전집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5월말까지 전6권을 출간할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김윤식 전집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집이라기보다는 선집이다.

다작으로 유명한 그의 저작물 가운데 주요 저술을 가려 뽑아 사상사, 비평사, 소설사, 작가 작품론(2권), 예술기행 등으로 분류, 수록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세한 연보와 방대한 저술목록이 첨가되는 이 전집은 당대의 영향력 있는 한 비평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호웅, 이동하, 서경석, 권성우, 한 기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적잖은 예산과 준비기간을 요구하는 전집출판이 몇몇 문학전문 출판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현상은 출판계와 문학계 모두 일단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민음사의 이영준 주간은 이같은 문학전집 출간붐에 대해 “출판계가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면서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 전집출판이 장사가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잖은 손해를 주는 일이긴 하지만, 문학출판사로서 할 일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했다”고 말한다. 특히 전집은 문학적으로 고평되는 작가 개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그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기본 텍스트가 된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손을 대야만 하는 작업이라는 것.

또한 올해가 ‘문학의 해’라는 사실도 전집출판붐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이다. 문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출판계가 ‘문학의 해’를 맞아 굵직한 기획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 전집출판이라는 해석이다. 현재 국내작가 이외에 해외 유명 고전작가들의 전집도 적잖이 기획,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올 한 해는 전집물이 유난히 눈에 많이 뜰 것으로 보인다.

〈정소연〉

바쁜 원고 까다로운 원고는 모두 삼연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시간을 다투는 일이나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편집 일을 두고
혹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땐 바로 삼연편집실을 찾아 주십시오.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 출판물 및 문예물 등을
집필해 드립니다.

또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고
유려한 문장이 되도록 운문도 해드립니다.

사전류 · 한서류 · 문학 및 학술 서적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완벽한 교열 · 교정을 해드립니다.

교정과는 별도로 전문 레이아웃도 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 단행본 등
그 출판물의 성격에 가장 어울리는 레이아웃으로
알차고 깔끔하게 면구성을 해드립니다.



기جه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 · 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三峴編輯室

대표자 : 김문관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549-6883~5 팩스 · 모뎀: 515-1453
천리안 ID : SAMYEUN